

전일동향

전일 대비 9.80원 하락한 1,386.2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92.60원(15:30 기준) 대비 2.40원 상승한 1,395.0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 달러 매도물량 유입에, 전일 대비 9.80원 하락한 1,386.2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달러-원 환율이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의 영향으로 11개월 만에 다시 1,300원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4.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2.0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95.00	1395.00	1380.30	1386.20	1383.60
	엔화	876.32	878.67	868.11	872.01	-
	유로화	1631.62	1631.79	1613.39	1618.43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1	-1.27	-4.56	-10.55
	결제환율(수입)	0.02	-0.27	-2.5	-6.8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무역협상 결렬에...1,3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86.50, 15:30 기준) 대비 0.55원 하락한 1,385.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보호무역 우려가 촉발한 위험선호 심리 둔화로 상승 전망한다. 주말간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보호무역 이슈가 재차 화두로 부상했다.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 다수 품목에 50% 관세를 발효했고, 캐나다는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회자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했고, 이는 달러 신뢰도 저하 우려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외재료들을 반영한 가운데,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다만, 수급적으로 달러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는 여건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0.00 ~ 1392.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59.6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5원 ↓
	■ 美 다우지수 : 53277.01, +517.8p(+0.9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28.4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435 억원